

T V

TV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55 KBS 스포츠 타임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당신 참 예쁘다>	15 KBC 뉴스지금 40 출발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미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특집 다큐멘터리 <골>	40 아침연속극 <미쓰 아줌마>
30 KBS 뉴스	00 생활의 발견 오교도 20 아침드라마 <두근두근 달콤>	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20 좋은아침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행복산 세상	00 여유만만		40 SBS 뉴스
00 여성공간 55 바른말 고운말	00 지구촌 뉴스 20 TV특강(재)	00 찾아라 맛있는 TV스페셜	00 SBS생활경제 40 KBC생활뉴스
00 KBS 뉴스 12	00 인간극장스페셜 1~2부(재)	00 MBC 뉴스 25 다문화 희망 프로젝트 <우리는 한국인>	00 SBS 12 뉴스 30 세계의 길을가다(재)
00 KBS 골격선 (재방송 김탁구)(재)		05 MBC 주말특별기획 드라마 <내 마음이 들리니>(재)	30 도전 슈퍼대(재)
00 KBS 뉴스 10 연중기획 여성이카데미	10 퀴즈쇼 사총사(재)		00 SBS 뉴스 1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10 제2회 나라사랑 음악회(재)	00 KBS 뉴스타임 05 다오매제 불행 대동(재) 35 달의 신나는 우주여행	20 TV방송 꾸러기 식사교실 베스트 50 MBC 뉴스	10 세계의 명산 그리고 사람들(재)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네트워크 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 청주)	00 TV 유치원 30 딸기가 좋아	00 뽀뽀뽀 아이즈 30 사이리 히어로	00 내친구 해치 30 내마음의 클래식 스페셜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사랑의 가족 30 희망 릴레이	00 일일시트콤 <몽땅 내 사랑>(재)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세상발견 유레카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세상	00 KBS 뉴스타임 05 리빙쇼 당신의 여성서	00 6시 뉴스매거진 50 생방송 전국시대	30 생방송! KBC 투데이
00 KBS 뉴스 7 30 러브인 아시아	00 생생정보통	45 일일시트콤 <몽땅 내 사랑>	10 시사타치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
25 일일연속극 <우리집 여자들>	20 생방송 세계는 지금 50 1대100	15 일일연속극 <불굴의 며느리> 55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기자가 만난 세상 <원정21>
00 KBS 뉴스 9	50 KBS 뉴스타임 55 월화 드라마 <동안미녀>	55 월화 드라마 <미스 리플리>	55 월화미시리즈 <내게 거짓말을 해봐>
00 시사기획 KBS 10 50 아름다운 사람들			
00 KBS 뉴스 라인 40 집중인터뷰 이, 사람	15 김승우의 승승장구	15 PD수첩	05 감성장
35 KBS 뉴스 45 KBS 네트워크 기획 <우리는 다 한국인>	2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TV특강	10 MBC 뉴스24 25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앙코르 MBC프리뷰 <말 산업을 주목하라>	40 나이트 라인

“독자 한사람 한사람 만나는 느낌이었다”

차인표 두번째 소설 '오늘 예보' 출간

“올해로 연기생활 18년입니다. 연기를 하며 먹고 살게 됐으니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연기를 하면서 늘 다른 사람이 창작한 것을 표현하다보니 나도 창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됐어요. 내가 쓰면 어떨까 싶었죠.”

최근 ‘잘가요 언덕’에 이어 두 번째 소설 ‘오늘 예보’를 낸 차인표(44)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전까지는 연예인으로서 대중을 상대했다면 책을 내고 나서는 독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독자들과 만나는 데엔 묘한 스타일이 있다. 계속해서 그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오늘 예보’는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삶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세 남자의 이야기다. 부유하고 운화하게 성장해 밀박당 인생은 전혀 모를 것 같은 차인표가 세 남자의 처지를 세밀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도 놀라운 데다, 직설적이고 코믹하며 삶의 체취가 묻어나는 생생한 에피소드와 대사가 시종 폭

소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아내(신애라)는 내가 웃긴다고 한다”며 웃은 차인표는 “사실 처음에는 책의 내용이 많이 무거웠다. 그러나 시나리오로 쓸 계획을 바꿔 소설로 내기로 하면서 청소년들이 많이 봤으면 하는 생각에 내용을 많이 순화했고 최대한 웃기게 하려고 노력했다”며 “사람들이 보고 웃으면서 위안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가 많잖아요? 저도 주머니에 300원밖에 없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 시간들을 굳이 말하지 않을 뿐이죠.초등학교 1학년 때 입에 버즘이 나 파란색 약을 칠하고 다녔는데 그때 애들이 절 지지분하다고 싫어했던 경험, 무료급식현장과 소아암병동에봉사활동을 하러 나갔던 경험과 예비군훈련 때 만난 나이트클럽 웨이터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 등 직,간접 경험을 많이 녹여넣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당 4만 원짜리 드라마 보조출연자로



살아가는 ‘이보홀’의 이야기는 저자의 실제 직업과 오버랩되며 ‘이보다 사실적일 수 없는’ 재미를 준다. 깔깔거리는 웃음 밑에 진한 페이스소를 깔아놓은 ‘오늘 예보’는 ‘죽어라 죽어라’하던 세 주인공이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 속에서 서로에게 구원이 되는 희망적인 결말을 내놓는다. 더불어 자살을 시도했던 나고단의 인생은 20년 뒤 전혀 다르게 바뀌어있다.

차인표는 “전 재가 지쳐있을 때 모르는 사람이어서 ‘힘내세요’라고 해주면 진짜 힘이 될 것 같아요. 따뜻한 응원 한마디, 관심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을 바꿉니다. 이 책을 통해 인생이라는 달리기에서 혼자 치고 나갈 생각만 하지 말고 쓰러진 사람들에게 손도 내밀고 응원도 해주며 살자고 전하고 싶습니다.”

김용준과 여육훈은 뽀스니, 전창걸은 대마초상 습흡연, 이성진은 사기와 도박 혐의로 각각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SG워너비의 김용준·이성진 등 KBS 출연금지

뽀스니 사고를 낸 인기그룹 SG워너비의 김용준을 비롯해 이성진, 전창걸, 여육훈 등 4명이 KBS 출연금지 명단에 추가됐다. KBS는 27일 “최근 도박, 뽀스니, 마약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김용준, 이성진, 전창걸, 여육훈 등 연예인 4명에 대해 출연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이로써 총 26명이 KBS 출연규제자 명단에 올랐다”고 밝혔다.

현재 KBS 출연 규제자 명단에는 신정환, 김성민, MC몽 등이 올라있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8일(음 5월 27일 甲寅)



36년생 모든 면에서 뛰어난 인물과 인연이 된다. 48년생 표현력이 부족해서 오해가 있다. 60년생 남의 물건을 빌릴 일이 생긴다. 72년생 원칙대로 처리하다 보니 피곤하다. 84년생 뒷선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76, 04



37년생 고집 관념을 조금씩 깨기 시작한다. 49년생 벌 잃도 아닌 데 엉겁결에 화를 낸 것 같다. 61년생 심사숙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73년생 무엇인가를 집요하게 해내고자 하는 형상이다. 85년생 병아리가 부화하여 막 나오는 이치다. 행운의 숫자 : 62, 43



38년생 자신에 관한 일을 제3자가 적극 나서서 처리해 준다. 50년생 벌어질 그 일은 확실히 믿어도 좋다. 62년생 답답해서 무인도라도 들어가고 싶다. 74년생 능력이 있다고 자부하는데 수용되지 않는구나! 행운의 숫자 : 27, 10



39년생 감명 깊은 책을 읽는다. 51년생 자신의 청을 들어준다기에 즉시 속 마음을 드러낸다. 63년생 양면성을 띤 상대의 표정에 질리고 만다. 75년생 자신의 쓰러린 실망감을 이내 감추지 못한다. 행운의 숫자 : 91, 70



40년생 평소 소고 하고 싶었던 것을 행하게 되거나 소박한 소원이 이루어진다. 52년생 오늘따라 유난히 라이벌 의식을 느낀다. 64년생 삶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 76년생 종종 구매를 하고 나면 늘 후회한다. 행운의 숫자 : 41, 57



41년생 전화 번호를 제대로 눌렀다고 보는데 모르는 곳이 나온다. 53년생 부질없는 세상살이에서 다소 초연할 필요가 있다. 65년생 늦은 귀가에 대문은 열려 있으니 일단 안심 하자. 77년생 절제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18, 37



42년생 오랜만에 찾아 온 친척과 밤 새워 얘기를 나눈다. 54년생 누전이나 가스 누설을 주의해야겠다. 66년생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하나씩 해야 하리라. 78년생 작업이 속달되지 않아서 타인이 도와준다. 행운의 숫자 : 56, 21



43년생 처리할 건에 대해 성과를 기다린다. 55년생 현실에 안주하려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67년생 자신의 차례가 되자 일상천리로 발원한다. 79년생 데이트 신청을 받아서 마냥 황홀하다. 행운의 숫자 : 12, 36



44년생 남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의를 받을 운수다. 56년생 어느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처리해야한다. 68년생 선점은 성공의 지름길이다. 80년생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고 길이 아니면 자지를 말라 했다. 행운의 숫자 : 28, 70



45년생 자신이 원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진다. 57년생 정기적인 종합 건강 검진을 받아 봄이 좋다. 69년생 뒤통수에도 눈이 있다. 81년생 미혼자는 여러 곳에서 혼담이 들어오지만 달갑지가 않다. 행운의 숫자 : 33, 51



46년생 전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돈이 들어온다. 58년생 가족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본다. 70년생 못이 커야 용도 난다. 82년생 현재의 직장에 만족하지 못해서 늘 마음이 떠있다. 행운의 숫자 : 85, 02



47년생 여대 진행 중이던 사안을 재검점할 가능성이 크다. 59년생 무른 감도 쉬어 가면서 먹었다. 71년생 귀한 손님이 오시니 식탁을 깔끔히 해야 하리라. 83년생 커릴름을 선물 받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8, 64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우리말 나들이	굿모닝 잉글리쉬	니하오 쑹구위	오하오우 니혼고
<p>개발새발(X) → 괴발개발(O)</p> <p>“글씨를 바르게 써야지, 이렇게 개발새발 써 놓으면 되겠니?”</p> <p>“너부터 바른 말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개발새발이 아니라 괴발개발이 바른 표현이야.”</p> <p>“아니, 많은 사람들이 개발새발로 쓰는데?”</p> <p>우리는 흔히 아무렇게 써 놓은 글씨 혹은 그 모양을 개발새발로 쓰는데, 이것은 잘못 쓰인 말이다. 괴발개발은 고양이 발과 개의 발이라는 뜻으로, 글씨를 되는대로 아무렇게나 써 놓은 모양을 이르는 말이다. ‘담벼락에는 괴발개발 아무렇게나 낙서가 되어 있었다’로 써야 맞다.</p>	<p>Let's give it a try</p> <p>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죠</p> <p>A : So, are we all behind this new project? B : I'm in favor, Maggie. C : Ditto, It doesn't look too expensive, either. A : That's right, Nigel. I think we can keep costs down. C : I can't see a problem. Let's give it a try.</p> <p>A : 그러면, 모두 이 새로운 기획안에 찬성하는 건가요? B : 전 찬성합니다, 매기 씨. C : 저도 찬성합니다. 경비도 많이 들지 않는 것 같은데요. A : 그렇습니다. 나이 겠 씨,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 :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군요.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죠.</p> <p>* behind : ~을 후원[지지]하여. * Ditto = Me, too = I'm in favor, too.</p>	<p>吃皇粮 chī huáng liáng</p> <p>황제의 양식을 먹다</p> <p>‘皇粮’은 옛날 관리에게 봉급으로 주던 식량을 가리킵니다. ‘皇粮’에 ‘먹다’라는 동사를 결합하여 ‘황제(皇)의 양식(粮)을 먹다(吃)’로 쓰면 공직에 근무하며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吃皇粮을 현대 우리말로 직역해보니 ‘대통령이 하사한 밥으로 먹고 산다’로 번역이 되네요. 권력자와 백성간의 관계설정과 그 인식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많이 바뀌었지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할 때 글자와 모습만의 묵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 두 다리 딛고 서 있을 존엄과 자유를 만들어준 이들에 대한 감사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p> <p>언어엔 보수적인 성향도 있어서 지금도 중국에서는 ‘황제의 밥을 먹는다’는 ‘吃皇粮’이 쓰이고, “吃皇粮的腐败现象到处可见(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의 부패현상은 도처에서 볼 수 있다.)”라는 문장이 용례로 보입니다.</p>	<p>箱づちを打ちながら聞いてくれる。</p> <p>맞장구를 치면서 들어 주잖아</p> <p>A : 日本人は聞き上手だね。 B : そういう意味なの。 A : 箱づちを打ちながら聞いている。 B : 韓国では人の話の途中で言うのは失礼だね。 A : 일본인은 상대방 말을 잘 들어주지. B : 무슨 의미야? A : 맞장구를 치면서 들어 주잖아. B : 한국에서는 남의 얘기 도중에 말하는 것은 실례야.</p> <p>[단어정리]</p> <p>聞き上手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줌. 箱づちを打つ 맞장구를 치다 失礼だ 실례이다</p>
<p><전남언어문화교육 연구회></p>	<p><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p>	<p><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p>	<p><아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http://www.kjasuka.co.kr ☎ 232-1503</p>